2022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온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진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손동작하며) 제가 한 동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채팅 창의 반응을 보고) 네, 맞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화면에 공유하고 있는 동작인데요,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의 수어 인사입니다. 수어는 '수화 언어'의 준말인데요, 최근에 비접촉 인사법으로 수어를 사용하자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 캠페인을 보고 수어에 대한 관심이 생겨 발표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수어에서 의미를 만들어 내는 요소로는 수지 기호와 비수지 기호가 있습니다. 그중 수지 기호는 손의 모양, 위치, 움직임 등을 통해 의미를 나타냅니다. 가령, 보고 계신 화면처럼 오른손으로 왼팔을 쓸어내린 다음,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아래로 내리면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히 계세요.'를 의미하는 수어 인사가 됩니다. 수지 기호에 따라 전달하려는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다음 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렇게 오른손을 펴서 엄지를 이마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을 좌우로 흔들면 '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엄지는 이마에 댄 채로 검지, 중지만 펴서 흔들면 '경찰'을 나타냅니다. 손 모양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름과 같은 고유 명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때는 한글 자모나 숫자, 알파벳 등을 나타내기 위한 손 모양인 지화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비수지 기호는 손이 아닌 눈, 코, 입, 머리 등의 움직임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의미를 나타내거나 문장 형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 제시) 손으로 턱을 쓰다듬어 내리는 '행복'이라는 수어 동작을 할 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시범을 보이며) 반대로 이렇게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손동작을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채팅 창을 보며) 네, 맞습니다.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비수지 기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수지 기호는 문장 형식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요, 화면에서와 같이 '행복'을 의미하는 손동작과 함께 눈썹을 올리며 눈을 크게 뜨고 턱을 당기면 '행복하니?'라는 의문문이 됩니다.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다 함께 따라 해 봅시다.

지금까지 수어의 수지 기호와 비수지 기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수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참고한 국립국어원 누리집과 수어 통역사 ○○의 인터넷 수어 강의를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수어 인사를 하며 마칠까요? (채팅 창을 보고) 어떻게 인사를 하냐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알려 드린 수어 인사를 하면 됩니다. (수어 인사를 하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발표를 시작하며 발표 순서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② 발표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③ 발표자의 경험을 언급하며 주제 선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④ 시범을 보이며 발표를 진행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발표를 마무리하며 추가 정보의 확인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닭) (경찰)	(행복하다) (행복하니?)
[자료 1]	[자료 2]	[자료 3]

① [자료 1]을 활용하여 수어 인사에 대한 소개로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② [자료 1]을 활용하여 수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수지 기호의 요소를 소개하고 있다.
③ [자료 2]를 활용하여 수지 기호에 따라 수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④ [자료 3]을 활용하여 비수지 기호만으로 '행복하니?'라는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⑤ [자료 3]을 활용하여 청중들이 수어 동작을 직접 따라 해 보도록 제안하고 있다.

3. 다음은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1 : 축제 공연을 준비하면서 안무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수어 인사를 넣어야겠어. '사랑'을 뜻하는 수어를 넣고 싶은데,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찾아봐야겠어.

학생 2 : 방송에서 보았던 수어 통역사가 코로나 19 상황임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했는데, 수어에서 표정이 의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군!

① 학생 1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발표에서 들은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이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고 있다.
③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 발표 내용에 포함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④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측하고 있다.
⑤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평소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를 수정하고 있다.

[4 ~ 7] (가)는 교지 편집부 학생들의 회의이고, (나)는 회의에 참가한 학생들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편집부장 :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교지 특집 기사의 제재에 대한 학생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학교생활'이 선호도가 높았어. 오늘은 이 중 하나를 선정하고 기사로 구성할 내용에 대해 협의해 보자. 어떤 제재가 좋을까?

학생 1 : 나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 줄이기'라는 제재가 더 좋아. 많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는 환경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디지털 기기 사용과 지구 온난화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 큰 관심을 보일 것 같아.

학생 2 :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학교생활'은 평소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해 왔어. 오히려 코로나 19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된 디지털 기기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하면 좋겠어. [A]

편집부장 :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디지털 탄소 발자국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환경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유익한 기사가 될 것 같아. 그럼 어떤 내용들로 기사를 구성하면 좋을까?

학생 1 : 먼저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개념부터 설명하면 좋겠어. 학생들에게 생소한 개념일 거야.

학생 2 : 맞아. 그리고 탄소 발자국 중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아.

편집부장 :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이산화 탄소를 발생시키는 이유를 글의 내용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학생 2 : 동의해. 나도 디지털 탄소 발자국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했던 내용이거든. 막연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지구 온난화를 앞당긴다는 내용보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1 : 좋아. 그리고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도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 [B]

편집부장 : 그럼,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말해 보자. 내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거나 송수신되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것이라고 했어.

학생 2 : 그러면 불필요한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만 줄여도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네.

학생 1 : 맞아. 또 누리 소통망이나 인터넷에 불필요한 상업 광고나 게시물 탑재를 제한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

편집부장 :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상업 광고나 게시물 탑재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학생들이 자신의 메일함이나 블로그에서 이를 수시로 삭제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아.

학생 1, 2 : 그게 좋겠다.

편집부장 :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해 보자.

(나)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디지털 탄소 발자국

우리는 흔히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자동차 등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생각해 왔다.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이산화 탄소의 주요 배출원이 공장이나 자동차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탄소 발자국'이라는 지표를 사용해 왔는데, 탄소 발자국이란 인간의 활동이나 인간이 사용하는 상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의 양을 의미한다.

최근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탄소 발자국'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의 양을 의미한다. 국제 환경 단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보급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전체 탄소 발자국 중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 정도에서 2040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떻게 이산화 탄소 배출을 늘리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는 와이파이나 LTE, 5G와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정보는 모두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 저장된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송수신할 때 많은 전력이 소비된다. 이때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 탄소가 배출되는 것이다.

그러면 학생인 우리가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는 정보의 양과 데이터 센터를 통해 송수신되는 정보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메일 계정이나 포털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불필요한 이메일, 인터넷 게시물, 동영상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불필요한 전화 통화, 이메일이나 메시지의 송수신, 인터넷 검색 등을 줄여 네트워크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의 실천을 생활화하여 환경을 고려한 디지털 기기 이용 습관을 형성한다면 디지털 탄소 발자국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가)의 '편집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지난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해야 할 내용을 밝히고 있다.
② 상대 의견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③ 회의 중간중간에 상대가 했던 말을 요약하며 정리하고 있다.
④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상대에게 제안하고 있다.
⑤ 상대 의견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대화이고, [B]는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는 대화이다.
② [A]는 기사 작성의 방법을 협의하는 대화이고, [B]는 기사에 포함될 정보를 선정하는 대화이다.
③ [A]는 기사의 제재를 선정하기 위한 대화이고, [B]는 기사에 담을 내용 요소를 생성하는 대화이다.
④ [A]는 회의 방법과 절차를 협의하는 대화이고, [B]는 회의 참가자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대화이다.
⑤ [A]는 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대화이고, [B]는 기사 내용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는 대화이다.

6. (가)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가)에서 언급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주요 배출원을, (나)의 1문단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② (가)에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개념을 설명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나)의 2문단에서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③ (가)에서 탄소 발자국 중 디지털 탄소 발자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자는 의견을, (나)의 2문단에서 자료를 활용하여 반영하고 있다.
④ (가)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이산화 탄소를 발생시키는 이유를 설명하자는 의견에 따라, (나)의 3문단에서 그 이유를 데이터 센터와 관련지어 서술하고 있다.
⑤ (가)에서 학생들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자는 의견에 따라, (나)의 4문단에서 다양한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7. <보기>는 학생들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ㄱ. 환경부 자료

구분	이메일	전화	데이터	종이컵	승용차
이산화 탄소 배출량	4g (1통)	3.6g (1분)	11g (1mb)	11g (1개)	14g (100m)

ㄴ. 신문 기사

2010년 112개였던 국내 데이터 센터는 코로나 19 유행 이전인 2019년까지 158개로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 19 유행이 지속되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3년까지 47개소가 늘어난 205개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ㄷ. 전문가 인터뷰

코로나 19 유행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모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대용량의 자료를 빈번하게 송수신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용량을 증가시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를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① ㄱ을 활용하여,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 탄소가 일회용품이나 자동차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도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야겠어.
② ㄴ을 활용하여,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늘어남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해야겠어.
③ ㄷ을 활용하여,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스트리밍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용량 자료의 송수신을 줄이자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④ ㄱ, ㄴ을 활용하여,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야겠어.
⑤ ㄴ, ㄷ을 활용하여, 급격하게 늘어난 데이터 센터의 수와 디지털 기기 사용 양상을 언급하며 코로나 19 유행 이후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 급증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8 ~ 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일상의 경험에서 발견한 가치를 담은 글을 쓴다.
* 문학 동아리 합평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글을 수정한다.

[초고]

앞집 담장 위로 고개를 내민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터트렸다. 봄이다. 이런 봄날의 산책은 숲길이 제격이다. 집을 나서자마자 수성동 계곡에서 시인의 언덕까지 오늘 산책길을 마음에 그렸다.

수성동 계곡까지는 골목 오르막길을 따라 잠깐 걸으면 된다. 봄비가 엊그제 내려서 제법 물소리가 또랑또랑하게 흐른다. 수성동 계곡은 인왕산 동쪽에서 우리 동네 쪽으로 흐르는 계곡인데, 흰 암반 사이를 흐르는 물소리가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은근히 가슴이 뿌듯하다. 조선 후기의 화가인 겸재 정선의 그림에도 등장할 만큼 아름답기 때문이다.

해맞이 동산 숲길에는 싱그러운 봄의 정취가 가득하다. 산들바람에 꽃눈을 매단 조팝나무 가지가 한들거린다. 산들바람이 지나는 길을 따라 풀들이 파릇파릇 잎을 내밀고, 개나리랑 진달래도 벌써 환하게 꽃물이 돈다. 겨울이 지나가고 바로 그 자리에 새봄이 돋아나고 있다.

가온다리를 건너다 보니 길이는 짧지만 우쭐우쭐하게 출렁거린다. '가온'은 '중간의'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이다. 흔들리는 다리 가운데에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 보라는 뜻인가 보다. 가온다리를 지나면 두꺼비 바위와 이빨 바위를 만날 수 있다. 무심코 지나치면 그 형상을 볼 수 없지만 안내 표지를 확인하고 잠시 멈춰 바라보면 절로 웃음이 난다. 두꺼비 바위는 얼굴 생김새가 정말 두꺼비 같고, 이빨 바위는 딱딱 소리를 낼 것 같다.

이제 시인의 언덕이 멀지 않다. 수성동 계곡에서 시인의 언덕으로 오르는 숲길은 가파르지는 않지만, 나무 계단이 많은 오르막의 연속이다. 오르막을 오를 때 나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걷는다. 남들의 속도를 의식하지 않고 내 호흡과 발걸음에 맞춰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리가 뻐근하고 조금 숨이 차지만 왠지 마음이 달큼하다.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 윤동주 시인은 이 시인의 언덕에 올라 시심을 다듬었다고 한다. 언덕 곁에는 윤동주 문학관이 서 있다. 이곳은 수도 가압장과 물탱크를 개조하여 만들었다. 느려지는 물살에 압력을 가해 다시 힘차게 흐르게 하는 수도 가압장을 문학관으로 꾸민 것이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난 지치고 힘들 때 이곳에 오르면 내 영혼의 가압을 느낀다.

8. '초고'에서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자문자답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② 현재형 표현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④ 묘사를 통해 글쓴이가 바라본 정경을 표현하고 있다.
⑤ 지명의 유래를 소개하여 장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9. 다음은 글을 쓰기 전 학생이 구상한 내용이다. '초고'에 반영되지 <u>않은</u> 것은?

○ 장소의 이동에 따른 글의 내용 구성

집	· 앞집 담장 너머의 산수유 꽃을 봄. …… ㉠ · 봄날의 산책은 숲길이 좋겠다고 생각함.
↓	
수성동 계곡	· 계곡의 물소리를 들음. · 아름다운 경치에 뿌듯함을 느꼈음. …… ㉡
↓	
해맞이 동산	· 조팝나무, 개나리, 진달래를 봄. …… ㉢ · 숲길에서 싱그러운 봄의 정취를 느낌.
↓	
가온다리와 바위들	· 출렁거리는 다리를 건넘. · 두꺼비 바위에서 위압감을 느낌. …… ㉣
↓	
시인의 언덕	· 시인의 언덕까지 오르막을 천천히 걸음. · 조금 숨이 차지만 마음이 달큼함. ……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보기>의 합평회 의견을 반영하여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부원 1 : '영혼의 가압'이라는 표현이 참신하게 느껴져. 시인의 언덕으로의 산책이 너에게 주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면 더 좋을 것 같아.

부원 2 : 너와 함께 산책하는 기분이 들어 좋았어. 글을 마무리할 때 산책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후의 느낌을 드러내면 더 좋겠어.

① 시인의 언덕에 오르니 마음의 근육에 힘줄이 선다. 집에 돌아오니 마음의 뜨락에 봄의 생기가 넘친다.
② 시인의 언덕에 올 때마다 마음이 순수해진다. 시인의 '서시' 한 구절을 읊조리며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선다.
③ 수도 가압장에서 우러러본 하늘이 매우 파랗다. 시인의 언덕은 재충전의 기회와 용기를 주는 영혼의 가압장이다.
④ 시인의 언덕에 서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상쾌해진다. 윤동주 문학관에서 집으로 다시 산책을 이어 간다.
⑤ 시인의 언덕은 나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보여 준다. 나는 수도 가압장에서 내 영혼이 세차게 흐르는 것을 느낀다.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뉜다.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 곧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현대 국어의 주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으)시-'나 주격 조사 '께서', 특수 어휘 '잡수다', '계시다' 등을 통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주체 높임도 선어말 어미 '-(ᄋᆞ/으)시-'로 실현되었으며, 이는 '-(ᄋᆞ/으)샤-'로도 나타났다. 또한 '좌시다', '겨시다' 등의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 어휘도 존재하였다.

[A] 주체 높임은 일반적으로 주체의 나이가 화자보다 많거나 사회적 지위 등이 화자보다 높을 때 실현된다. 하지만 주체와 청자의 관계, 담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라도 높이지 않거나,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도 높이기도 한다. 가령 방송과 같은 공적 담화에서는 객관성을 고려하여 주체를 높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체의 신체 일부, 소유물 등 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일 수도 있는데, 이를 간접 높임이라고 한다.

객체 높임은 서술의 객체인,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현대 국어의 객체 높임은 부사격 조사 '께'나 '모시다', '여쭙다' 등의 특수 어휘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은 부사격 조사 '쎄'나 '뫼시다(모시다)', '엳ᄌᆞᆸ다' 등의 특수 어휘뿐만 아니라,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ᄉᆞᆸ-, -ᄉᆞᅀᆞᆸ-, -ᄌᆞᆸ-' 등으로도 실현되었다.

상대 높임은 화자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현대 국어의 상대 높임은 주로 '-습니다', '-아라/-어라' 등의 종결 어미로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상대 높임 또한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주로 종결 어미로 실현되었지만, 현대 국어와 달리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 '-잇-'이 존재했다. 선어말 어미 '-이-'는 평서형에서, '-잇-'은 의문형에서 각각 나타나며 상대를 아주 높일 때 사용되었다.

11.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ㄱ. (아버지께) 선생님께서는 책이 많으십니다.
ㄴ. (방송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ㄷ. (수업에서 선생님이) 발표할 어린이는 손 드시면 됩니다.
ㄹ. (어린 손자에게) 너희 엄마는 언제 출근하셨니?
ㅁ. (할아버지께) 아버지는 아직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① ㄱ에서는 '선생님'의 소유물인 '책'을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② ㄴ에서는 담화의 객관성을 고려해 '세종대왕'을 높이지 않고 있다.
③ ㄷ에서는 수업이라는 담화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를 높이고 있다.
④ ㄹ에서는 주체인 '엄마'와 청자인 '손자'의 관계를 고려해 '엄마'를 높이고 있다.
⑤ ㅁ에서는 주체인 '아버지'와 화자의 관계를 고려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 ~ c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a. [중세 국어] 大師(대사) ᄒᆞ샨 일 아니면 뉘 혼 거시잇고
[현대 국어] 대사가 하신 일이 아니면 누가 한 것입니까?
b. [중세 국어] 이 도ᄂᆞᆯ 가져가 어마니ᄆᆞᆯ 供養(공양)ᄒᆞᅀᆞᆸ고
[현대 국어] 이 돈을 가져가 어머님을 공양하고
c. [중세 국어] 太子(태자)ᄅᆞᆯ ᄲᅳ려 안ᄉᆞ바 부인ᄭᅴ 뫼셔 오니
[현대 국어] 태자를 싸 안아 부인께 모셔 오니

① a : 중세 국어에서는 '-샤-'를, 현대 국어에서는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대사'를 높이고 있다.
② a :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 없는 '-잇-'을 사용하여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고 있다.
③ b :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에 없는 '-ᄉᆞᆸ-'을 사용하여 객체인 '어마님'을 높이고 있다.
④ c : 중세 국어에서는 'ᄭᅴ'를, 현대 국어에서는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부인'을 높이고 있다.
⑤ c : 중세 국어에서는 '뫼셔'를, 현대 국어에서는 '모셔'를 사용하여 주체인 '태자'를 높이고 있다.

13. <보기>의 ㉮,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ㅎ'은 다양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ㅎ'의 음운 변동에는 'ㅎ'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ㅎ'이 다른 음운과 합쳐져 새로운 음운이 되는 축약, 'ㅎ'이 없어져 발음되지 않는 탈락이 있다. 가령 '놓친[논친]'은 'ㅎ'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교체의 예에 해당한다.

	'ㅎ'의 음운 변동		
유형	교체	축약	탈락
예	놓친[논친]	㉮	㉯

	㉮	㉯
①	좋고[조:코]	닿아[다아]
②	좋고[조:코]	쌓네[싼네]
③	넣는[넌:는]	닿아[다아]
④	넣는[넌:는]	쌓네[싼네]
⑤	좁힌[조핀]	닳지[달치]

14. <보기>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아래의 예문을 봅시다.

> ㉠ 외국에 있는 친구가 어제 전화로 "**네**가 **오늘** 말한 책이 **여기** 있**어**."**라고** 말했다.
>
> ⬇
>
> ㉡ 외국에 있는 친구가 어제 전화로 나에게 **내**가 **어제** 말한 책이 **거기** 있**다고** 말했다.

㉠은 친구의 말을 그대로 전한 직접 인용이고, ㉡은 친구의 말을 인용하는 화자의 관점으로 바꾸어 표현한 간접 인용입니다. ㉠이 ㉡으로 바뀌면서 인칭 대명사, 시간 표현, 지시 표현이 '나', '어제', '거기'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종결 어미 '-어'가 '-다'로, 직접 인용의 조사 '라고'가 간접 인용의 조사 '고'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료]의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르게 바꿨는지 분석해 볼까요?

[자료]

직접 인용	외국에 있는 형이 어제 전화로 "**나**는 **내일** **이곳**에서 볼 시험 때문에 걱정이 많**아**."**라고** 말했다.
⬇	
간접 인용	외국에 있는 형이 어제 전화로 **자기**는 **오늘** **그곳**에서 볼 시험 때문에 걱정이 많**다라고** 말했다.

① '나'는 앞서 언급한 형을 다시 가리키므로 인칭 대명사 '자기'로 바르게 바꿨군.
② '내일'은 인용을 하는 화자가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오늘'이 아닌 '어제'로 바꿔야겠군.
③ '이곳'은 인용을 하는 화자의 관점에서 형이 있는 곳을 가리키므로 '그곳'으로 바르게 바꿨군.
④ 직접 인용에 쓰인 종결 어미 '-아'를 간접 인용에서 종결 어미 '-다'로 바르게 바꿨군.
⑤ '라고'는 직접 인용에 쓰이는 조사이므로 간접 인용에 쓰이는 조사 '고'로 바꿔야겠군.

1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부정 표현 '-지 않다'는 줄여서 '-잖다'로 적을 수 있다. '시답다'에 '-지 않다'가 결합하여 '시답잖다'로 줄어든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잖다'는 특정한 상황에서 부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① 사촌 동생의 지나친 장난은 달갑잖아.
② 그때 거기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잖아.
③ 당신을 믿기에 이번 도전도 두렵잖아요.
④ 작지만 소소한 행복이 있다면 남부럽잖아.
⑤ 힘들었지만 배운 게 많아 성과가 적잖아요.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터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 우탁 –

(나)

임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희뜩* 서 있거늘 저것이 임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임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를 가리지 말고 워렁퉁탕 건너가서 정(情)엣말 하려 하고 곁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사흗날 껍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모쳐라 ㉠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낮이런들 남 웃길 뻔하였어라.

– 작자 미상 –

* 거머희뜩 :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모양.
* 곰비임비 : 거듭거듭 앞뒤로 계속하여.
* 천방지방 : 몹시 급하게 허둥대는 모양.
* 삼대 : 삼[麻]의 줄기.

(다)

고개를 넘어, 산허리를 돌아내렸다. 산 밑이 바로 들, 들은 그저 논뿐의 연속이다. 두렁풀을 말끔히 깎았다. 논배미마다 수북수북 담긴 벼가 연하여 백리금파(百里金波)*를 이루었다.
여기저기 논들을 돌아다니는 더벅머리 떼가 있다. '우여, 우여' 소리를 친다. 혹 '꽝꽝' 석유통을 두드리기도 한다. 참새들을 쫓는 것이다.
참새들은 자리를 못 붙여 한다. 우선 내 옆에 있는 더벅머리 떼가 '우여' 소리를 쳤다. 참새 떼가 와르르 날아갔다. 천 마리는 될 것 같다. 날아간 참새들은 원을 그리며 저편 논배미에 앉아 본다. 저편 애놈들은 날아 앉은 새 떼를 보았다. 깨어져라 하고 석유통을 두들긴다. 일제히,
"우여!"
소리를 친다. 이 아우성을 질타할 만한 담력이 참새의 작은 심장에 있을 수가 없다. 참새들은 앉기가 무섭게 다시 **피곤한 나래**를 쳐야 한다. 어디를 가도 '우여 우여'가 있다. '꽝꽝'이 있다. 참새들은 쌀알 하나 넘겨 보지 못하고 **흑사병 같**은 '우여, 우여', '꽝꽝' 속을 헤매는 비운아들이다. 사실 **애놈들도 고달플 것이다**.
나와 내 당나귀는 이 광경을 한참 바라보고 있다.
나는 나귀 등에서 짐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오뚝이 하나를 냈다.
"얘들아, 너들 이리 와 이것 좀 봐라."
하고, 나는 '오뚝이'를 내 들고 애놈들을 불렀다.
애놈들이 모여들었다.
"얘들아, 이놈의 대가리를 요렇게 꼭 누르고 있으면 요 모양으로 누운 채 있단 말이다. 그렇지만 한 번 이놈을 쑥 놓기만 하면 요것 봐라, 요렇게 발딱 일어선단 말이야."
나는 두서너 번 오뚝이를 눕혔다 일으켰다 하였다.
"이것을 너들에게 줄 테다. 한데 **씨름들을 해라**. 씨름에 이긴 사람에게 이것을 상으로 주마."

애놈들은 날래 수줍음을 버리지 못한다. 어찌어찌 두 놈을 붙여 놓았다. 한 놈이 아낭기*에 걸려 떨어졌다. 관중은 그동안에 열이 올랐다. 허리띠를 고쳐 매고 자원하는 놈이 있다. 사오 승부가 끝났다. 아직 하지 못한 애놈들은 주먹을 쥐고 제 차례 오기를 기다렸다. 승부를 좋아하는 **저급한 정열**은 인류의 맹장 같은 운명이다.

결국 마지막 한 놈이 이겼다. 나는 씨름의 폐회를 선언하고 우승자에게 오뚝이를 주었다. 참새들은 그동안에 배가 불렀을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천석꾼이의 벼 두 되를 횡령하고 재산의 칠 전 가량을 손(損)하였다. 천 마리의 참새들은 ㉡ 오늘 밤 오래간만에 배부른 꿈을 꿀 것이다.

– 김상용, 「백리금파에서」 –

* 백리금파 : 백 리에 걸친 금빛 물결.
* 아낭기 : 씨름 기술인 '안다리 걸기'의 평안도 사투리.

1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하여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② (나)는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③ (다)는 특정 대상과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의 추이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나)와 (다)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작중 상황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17.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임을 만나게 된 설렘을, ㉡은 수확을 끝낸 희열을 느끼는 시간이다.
② ㉠은 부재하는 임에 대한 원망을, ㉡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는 시간이다.
③ ㉠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부심을, ㉡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는 시간이다.
④ ㉠은 내적 갈등에서 벗어난 평온함을, ㉡은 내적 갈등으로 인한 괴로움을 느끼는 시간이다.
⑤ ㉠은 자신의 행동이 감추어진 것에 대한 안도감을, ㉡은 자신이 행동한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시간이다.

18. (다)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곤한 나래'를 통해 아이들의 훼방으로 인해 앉을 자리를 찾아 헤매며 힘겨워하는 참새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② '흑사병 같'다는 것을 통해 참새를 내쫓는 소리가 참새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③ '애놈들도 고달플 것이다'에서 쌀알 하나 못 먹게 참새를 쫓아야 하는 더벅머리 떼의 처지를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다.
④ '씨름들을 해라'라 하며 상으로 내건 오뚝이를 통해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⑤ '저급한 정열'이라 표현한 것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승부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해학은 제시된 사건이나 상황이 주는 메시지를 평가하고, 그것이 웃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포괄하는 인지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해학을 유발하는 요소에는 상황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가 있다. 상황적 요소는 상황의 반전, 상황의 부조화, 상황의 전이 등을 통해, 언어적 요소는 과장과 희화화, 재치 있는 표현을 통해 웃음을 머금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가)에서 거스를 수 없는 '백발'을 '가시'와 '막대'로 막으려는 상황이 부조화를 이루며 웃음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겠군.
② (나)에서 '임'으로 확신했던 것이 '주추리 삼대'로 밝혀지며 상황이 반전되는 것에서 웃음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겠군.
③ (다)에서 아이들이 '참새'를 쫓는 것에 관심을 두던 상황이 '오뚝이'를 쟁취하기 위한 씨름에 몰두하는 상황으로 전이되며 웃음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겠군.
④ (가)에서 늙음이 오히려 빠르게 다가온다는 것을 '지름길로 오더라'로, (다)에서 '참새'에게 쌀알을 배불리 먹게 해 준 일을 '벼 두 되를 횡령'한 것으로 재치 있게 표현한 것에서 웃음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겠군.
⑤ (나)에서 임을 만나기 위해 '버선'과 '신'을 신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을, (다)에서 '우승자'가 오뚝이를 상으로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과장하여 희화화한 것에서 웃음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겠군.

[20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6 ~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는 구시대의 권위에 반대하여 합리적 이성을 통해 인류의 진보를 꾀하려 한 이념이다. 이는 17세기 과학 혁명과 함께 근대의 시작을 알리며,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난 서구인들에게 이성에 기초한 사회야말로 인류에게 자유와 풍요를 선사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아도르노는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재앙의 ⓐ징후만이 빛나고 있다."라고 하며 계몽에 대해 다른 입장을 제시하였다.

아도르노는 계몽의 전개를,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에 대한 지배'에서,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자연에 대한 지배는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을 꾀하기 위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다. 뉴턴에 의해 완성된 근대 과학 혁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과 환상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하였다. 이를 무기로 인간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하여 자연에 맞서는 집단적 힘을 키움으로써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사회적 지배 양식이 강화되면서 계몽의 두 번째 단계인 인간에 대한 지배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이성은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된다. 이는 합리성이라는 ⓑ미명 아래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성이라 할 수 있다. 사회 전체가 도구적 이성에 의해 총체적으로 관리되면서, 개인은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 능력을 상실한 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사회는 점차 전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자연과 인간 사회의 지배자가 된 인간은, 계몽의 마지막 단계로 인간의 내적 자연마저 지배하게 된다. 내적 자연이란, 감정이나 욕망과 같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 요소를 말한다. 이는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의 방해 요소라고 여겨졌으므로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합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 인간은 스스로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만 했다. 역설적이게도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가 인간 스스로에 대한 폭력적 지배로 ⓒ귀결된 것이다. 그로 인해 인간은 존재의 허무감이나 자기 소외로 인한 불안과 절망을 감당해야 했다. 아도르노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세이렌의 일화]를 계몽의 전개 과정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알레고리*로 보고 그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처럼 아도르노는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원인을 계몽의 전개 과정, 즉 인간의 자기 보존에서 시작되어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까지 이어진 결과로 보았다. 특히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히틀러에 의한 나치즘과 유대인 학살은, 지배 논리로 전화(轉化)*된 근대 이성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라며 애도하였다.

* 알레고리 : A를 말하기 위해 B를 사용하여 그 유사성을 적절히 암시하면서 A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 전화 : 질적으로 바뀌어서 달리 됨.

(나)

고대의 신화, 그리고 중세의 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근대 서구인들에게 이성은 인류를 구원할 빛이자 진리였다. 그러나 이성을 ⓓ맹신한 결과 전쟁의 비극과 물질문명의 병폐를 경험한 유럽인들은,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함께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던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은 사회·정치적 긴장 상태에 항거하며, 그동안 근대 이성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어 왔던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예술 운동을 표현주의라고 부른다.

표현주의는 한 마디로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의미이다. 기존의 사실주의 회화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반면, 표현주의 회화는 눈에 보이는 대상의 모습이 아닌 작가의 감정이나 내면 등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표현주의 화가인 마티스는 『화가 노트』에서 "회화는 결국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표현이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회화의 기본 목적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규범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표현주의는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상의 색이나 형태가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색의 경우, 각각의 색감이 주는 주관적 느낌을 통해 작가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려 하였다.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사물이 갖는 고유한 색은 무시된 채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작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되었다. 또한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강렬한 감정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고 거친 붓놀림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표현주의는 전쟁 이후 사회의 불안감이나 인간의 근원적 고통을 화폭에 담아내었다.

표현주의는 ⓔ도외시되어 온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까지 확장시킨 운동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훗날 선이나 형, 색 등의 조형 요소를 통해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현대 추상 미술이 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 아방가르드 : 기성의 예술 관념이나 형식을 부정하고 혁신적 예술을 주장한 예술 운동.

2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근대 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와 이의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② 근대 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을 예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③ 근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④ 근대 사회의 특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분석한 두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⑤ 근대 사회의 과학 혁명을 이어 가기 위한 당시 사람들의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21. ㉠과 같이 말한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몽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을 옹호하고 있다.
② 인류의 진보를 지향했던 계몽주의가 인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한 것을 경고하고 있다.
③ 신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이성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④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인간의 집단적 힘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⑤ 근대 문명의 추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2. (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아도르노는 인간을 유혹해 제물로 삼는 세이렌을 자연의 위협으로 보고, 오디세우스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계몽의 전개 과정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세이렌의 일화

바다 요정 세이렌은 섬을 지나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유혹해 제물로 삼는다. 세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섬을 지나기 위해 Ⓐ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노를 저어 섬을 지나갈 것을 지시한다. 그리고 Ⓑ 아름다운 노랫소리의 유혹에 빠지려는 욕망을 스스로 억압하기 위해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세이렌의 섬을 지날 때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오디세우스는 이성을 잃고 풀어 달라고 애원하지만, 부하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힘차게 노를 저어 무사히 섬을 지나간다.

	Ⓐ	Ⓑ
①	인간에 대한 지배	자연에 대한 지배
②	인간에 대한 지배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③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④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	자연에 대한 지배
⑤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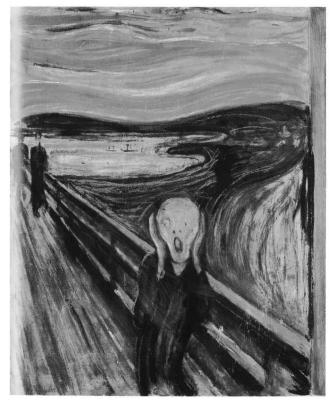
23. (나)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근대 이성에 회의를 느낀 유럽인들은 인간 실존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② 표현주의는 전쟁을 경험한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예술 운동이다.
③ 마티스에 의하면 표현의 의미는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④ 표현주의는 대상의 외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까지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⑤ 표현주의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혁신적인 예술 운동이었다.

24. (가)의 '아도르노'와 (나)의 '표현주의'의 관점에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표현주의 작가인 뭉크의 작품 「절규」에서는, 해골의 형상을 한 남자가 공포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 뒤로 핏빛으로 물든 하늘과 검은색 강물을 꿈틀거리듯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존재의 허무감에서 오는 불안과 고통을 감상자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뭉크, 「절규」

① (가) : 작가가 표현하려고 한 감정은 근대 이성에 의해 억눌려 온 인간의 내적 자연으로 볼 수 있겠군.
② (가) : 작가가 전달하는 불안과 고통은 이성이 팽배했던 근대 사회에서 한 개인이 느꼈던 존재의 허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③ (나) : 해골 형상과 꿈틀거리는 강물은 작가가 느끼는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형태를 왜곡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④ (나) :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모습을 회화적 전통에 따라 표현함으로써 감상자도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나) : 강물의 검은색은 실제 색이라기보다는 작가가 느끼는 고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5.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겉으로 나타나는 낌새.
② ⓑ :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
③ ⓒ :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름.
④ ⓓ :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일.
⑤ ⓔ :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함.

[26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적어도 그 다락 속에는 어머니의 은밀한 움직임에 명분을 줄 만한 물건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곧 그것을 발견했고 해답도 얻어 낼 수 있었다. 그것은 무심코 지독*의 뚜껑을 열어 봤을 때였다. 지독의 뚜껑을 열어제치는 순간, 나는 굳어 버린 듯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나는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소스라쳐 지독의 뚜껑을 닫고 문 쪽으로 기어 나갔다. 이불이 깔려 있는 방은 조용했고 툇마루에서는 옹알이를 하고 있는 아우의 기척이 들려 왔다. 나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독의 뚜껑을 벗겼다. 놀랍게도 그 지독엔 가녘까지 넘쳐 내릴 것 같은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도정까지 마친 하얀 멥쌀이었고 옆에 있는 지독엔 보리쌀이 반 넘어나 채워져 있었다. 채워 놓은 곡식에서 풍기는 특유의 비릿한 누린내가 코로 스며들었다. 문득 지독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평두가 되게 손등으로 꼭꼭 다져 놓은 곡식 사래 위에는 ㉠다섯 손가락의 형용이 너무나 선명한 손도장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식판에 요형(凹形)으로 파놓은 음각 무늬처럼 선명한 어머니의 손자국을 보는 순간 나는 섬짓한 긴장을 느꼈다. 그것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장군의 견장과 같은 것이었다. 내가 만일 그 쌀독 속을 헤적여 놓게 되면 어머니는 당장 다른 사람의 범접을 눈치 채게 될 것이었다. 어머니가 곡식을 다루는 꼼꼼한 경계심이 그 손자국에는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어머니는 심란해질 때,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에서 찢어지는 가난을 목도했을 때 이 다락으로 올라와서 지독의 뚜껑을 열어 보곤 했을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형제들을 밖으로 내몰고 몰래 지독의 곡식을 채워 왔을 것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지독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이 많은 곡식을 다락 위에다 채워 두고도 우리 세 식구는 속절없이 배를 주려 왔던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 스스로 파 놓고 있는 [함정의 모순]을 어떻게 삭여 내야 할지 전혀 궁리가 닿지 않았다. 그때처럼 어머니를 미워했었던 적은 없었다. 단 한 톨의 손상인들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섬짓한 의지를 손자국에서 발견하는 순간, 나는 사냥꾼에게 불을 맞고 죽을 때를 기다리는 짐승처럼 처절한 기분이었다. 곡식들이 지독 가녘으로 넘쳐 날 것 같이 채워질 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손자국으로 채워지는 곡식을 가늠해 왔을까.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도 어머니 스스로 만든 위안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다. 그 곡식이 밥이나 죽으로 둔갑하지 않는 한 그것은 언제까지나 어머니의 곡식일 뿐 우리 세 식구의 곡식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마루로부터 와락 뛰어든 아우의 다급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히야, 엄마 온다."

[중략 부분 줄거리] 다락에 숨어 있다가 어머니에게 발각된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혼내는 대신 쌀밥을 해 주셨다.

어머니가 우리들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나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의 밥을 먹고 난 뒤 설사에 부대끼느라고 밤잠을 설쳐야 했던 **그날 밤** 이후로 어머니는 고미다락의 문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락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채워 두기를 게을리하지 않던 어머니가 채워 둔다는 수칙을 스스로 깨뜨려 버린 것이었다.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그 내심을 알 수 없었다. 한동안이 지난 뒤에야 그것을 발견했던 우리는, 채워진 다락에 대해서 가졌던 강렬한 호기심보다 더욱 강렬하게 다락의 일에 빨려 들고 말았다. 어느 날 아우는 다락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일깨워 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코대답만 할 뿐 화들짝 놀라서 단속하려 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다락 출입을 중지해 버린 것도 아니었다. 옛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앞에서 그곳을 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조마조마하고 비밀스런 발자국 소리도, 우리들 몰래 길게 몰아쉬던 숨소리도 그 뒤로는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어머니는 자주 허리가 저리다는 둥, 청소를 해야겠다는 둥 혼잣소리로 다락 출입의 고초를 늘어놓곤 하였다.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말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다락에 대한 신비감을 반감시키는 단서가 됐을지도 몰랐다. 그렇다 해서 다락에 대한 원천적인 호기심이 희석되진 않았다. 다만 호기심의 방향이 바뀌어진 셈이었다. 그 다락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동안 그것은 오직 어머니의 것이었다. 그런데 다락문이 개방된 이후로 그것은 우리 세 사람 모두의 것이 되었다. 아우와 나 사이에 은연중에 지켜진 관행에 따른다면, 내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아우와 짝이 되어 보낸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측간을 가는 일조차 행동 통일이 되어야 직성이 풀렸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그날 우리는 한길에 있을 아이들을 찾아서 무심코 고샅길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때 아우는 걸음을 딱 멈추었다.

"히야?"

"……?"

"집 비워 두고 우리 둘 다 나가면 안 된다."

㉢아우의 반란은 의외였다. 우리는 어머니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시각이라면 종일토록 줄곧 집을 비워 두고 쏘다녔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도 그랬었겠지만 우리들에게도 편했다.

"니는 가기 싫어졌나?"

"아니다, 가고 싶다."

"그런데 왜 앙탈이고?"

"히야는 다락문이 열려 있는 거 모르나, 누가 들어와서 다락문 열면 우짤락꼬."

그랬다. 그제서야 나도 뒤통수가 찡했다. 우리는 한길로 진출하려던 속셈을 바꾸어야 했다. 다락문을 예전처럼 다시 채워 놓는다면 우리들 나들이에 꺼림칙함을 지워 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 능력으로는 그것이 손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어머니가 열쇠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었다. 그것이 난감했다. 나는 공연히 아우에게 쏘아붙였다.

"그러면 우짤래? 니 혼자서 집 지키고 있을래?"

아우는 아무런 갈등도 보이지 않고 고개를 주억거렸다. 고개만 주억거렸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진 좀처럼 내뱉은 적이 없던 한마디를 서슴없이 덧붙였다.

"히야 혼자 갔다 오니라."

그러한 ㉤아우의 대견함은 낯설고 놀라운 것이었다.

– 김주영,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

* 지독 : 종이를 삶아 짓찧어서 만든 독.

2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회상을 통해 주인공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②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③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폭로하고 있다.
④ 동시에 발생한 사건의 병치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⑤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미래의 일을 암시하고 있다.

27. 함정의 모순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곡식을 많이 모았지만 정작 모은 곡식을 숨겨 가족이 굶주리게 한 것을 의미하는군.
② 명분이 있을 만한 물건들이 없었음에도 어머니가 다락을 소중히 여겼던 것을 의미하는군.
③ 다락에 채워 놓은 자물쇠가 도난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군.
④ 쌀로 채워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보리쌀로만 채워진 지독을 발견한 것을 의미하는군.
⑤ 곡식을 온전히 보관하기 위해 지독을 이용했지만 곡식의 누린내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을 의미하는군.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어머니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② ㉡: 어머니가 허용하지 않은 공간에 출입한 것을 들킬까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③ ㉢: 행동 통일이 되어 왔던 관행을 '나'가 깨뜨리려 한 일에 대한 아우의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④ ㉣: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은 생각에 제동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⑤ ㉤: 혼자서라도 다락을 지키겠다는 아우의 언행이 뜻밖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29.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이 작품을 감상할 때는 '그날 밤'을 전후로 달라지는 인물의 행동과 심리, 사건의 전개 양상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품에 나타난 시간의 흐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때, 그날 밤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볼까요?

Ⓐ 이전 — 그날 밤 — Ⓑ 이후

① Ⓐ에서 다락에 대해 품었던 '나'의 원천적인 호기심이, Ⓑ에서 모두 희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에서 다락의 곡식에 대해 가졌던 어머니의 꼼꼼한 경계심이, Ⓑ에서 느슨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에서 다락의 곡식에 대해 어머니가 가졌던 애착을, Ⓑ에서 '나'와 아우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에서 어머니만 짊어졌던 다락에 대한 책임감이, Ⓑ에서 '나'와 아우에게도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⑤ Ⓐ에서 몰래 다락방에 출입했던 어머니가, Ⓑ에서 '나'와 아우가 바라보는 앞에서도 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개인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 이는 타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삭제, 정정 등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7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된 근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기본권 중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이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사망자에 관한 정보나 단체 혹은 법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이나 동영상 등과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이 역시 법적 보호 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가령 휴대 전화 번호의 뒷자리 숫자를 집 전화번호와 같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전 동의 제도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할 때 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역시 알려야 한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유 식별 정보는 여권 번호와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정보이며, 민감 정보는 건강 정보나 정치적 견해와 같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다. 이때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수집하려는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의 항목을 밑줄이나 큰 글씨로 강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이 수집·이용에 동의했더라도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되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에서 개인정보를 ㉠ 익명 정보로 처리하여 보존하거나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익명 정보란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익명 정보는 시간이나 비용,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했을 때 원래의 개인정보로 복원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로, 익명 처리를 마친 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

최근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익명 정보가 아닌 가명 정보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 혹은 대체한 것으로, 추가 정보와 비교적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될 수 있다. 단, 가명 정보는 익명 정보와 달리 개인정보와 일대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30.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
②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는 과정
③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
④ 개인정보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
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배경

3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은 익명 처리되기 전의 개인정보와 일대일로 대응한다.
② ㉡은 이용 목적에 상관없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③ ㉠은 ㉡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④ ㉡은 ㉠과 달리 수집 목적 이외의 분야에서 활용되기 어렵다.
⑤ ㉠과 ㉡은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32.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헌법 제17조에서는 타인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소극적 성격의 권리로 해석된다. 이는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을 포괄하기 어려워, 헌법 제17조만으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　　)하기 때문이다.

① 공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②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같은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
③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제공되도록 허용
④ 정보 주체의 이익보다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을 우선하여 보장
⑤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삭제, 정정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33. ⓐ의 사례에 해당하지 <u>않는</u> 것은?

① 학교 홈페이지에 담임을 맡은 학급과 함께 게시된, '김○우'라는 교사의 이름
②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에서 장(長)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의 휴대 전화 번호
③ 의사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에서 추도사를 읽는 유족의 얼굴을 촬영한 동영상
④ 원격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얼굴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⑤ 생전에 모은 재산 전액을 기증한 '이부자'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부자 장학 재단'이라는 명칭

34. 윗글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시 제시하는 다음 동의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주식회사 ○○(이하 '회사')는 ○○ 서비스 회원(이하 '회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합니다.

1. 수집 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4-1. 회원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4-2.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나. 건강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항목 : **건강 정보**
⋮

□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가'에서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자, '회원'은 개인정보의 주체에 해당하겠군.
② '가'의 4-2는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 주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해당하겠군.
③ '가'에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회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겠군.
④ '나'의 1은 개인의 건강 정보가 고유 식별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집 항목을 강조하여 표시한 것이겠군.
⑤ '나'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것이겠군.

[35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나)

천변 잔디밭을 밟고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자
잔디밭에 외줄기 길이 생겼다
어쩌나 잔디가 밟혀죽을 텐데
내 걱정 아랑곳없이
가르마길이 나고 그 자리만 **잔디가 모두 죽었다**
오늘 새벽에도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데
㉡ 멀리서도 보였다
죽은 잔디싹들이 사람의 몸 속에 푸른 길을 내고 살아 있는 것이
푸른 잔디의 것이 아니라면
저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렇게 청량하랴
걷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얘기소리에서
싱싱한 풀꽃 냄새가 난다
그제서야 나는 **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고 비켜서 있거나
아예 **사람 속에서 꽃피고 있음**을 안다
그렇듯 **언젠가는 사람들도**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도 알겠다

– 복효근,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

35.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③ 경어체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적 정서를 고백하고 있다.
④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36.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대상에 대한 동경을, ㉡은 연민을 나타낸다.
② ㉠은 대상에 대한 기대감을, ㉡은 친밀감을 나타낸다.
③ ㉠은 대상에 대한 이질감을, ㉡은 일체감을 나타낸다.
④ ㉠은 대상에 대한 상실감을, ㉡은 실망감을 나타낸다.
⑤ ㉠은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은 관심을 나타낸다.

37. 다음은 (가), (나)에 대한 '엮어 읽기 과제 수행록'이다.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공통점 : 인식의 변화 과정을 담고 있음.
○ 시적 대상(의미)
(가) : 복숭아나무(타인), (나) : 잔디(자연물)
○ 시상의 흐름에 따른 감상

(가)	시상	(나)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에서 타인에 대한 선입견이 나타남. ..... a	피상적 인식	'잔디가 모두 죽었다'에서 자연물에 대한 단편적 인식이 나타남.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에서 타인의 본모습을 발견함.	새로운 발견	'푸른 잔디의 것이 아니라면 저 사람들의 말소리가 저렇게 청량하랴'에서 자연물과 사람들의 관계를 발견함. ..... b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에서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타인의 모습을 인식하게 됨. c	인식의 변화	'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꽃피고 있음'에서 자연물이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전해 준다고 인식하게 됨.
'북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에서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교감함. ..... d	결과	'언젠가는 사람들도 잔디에게 자리를 내어준다'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적 원리를 깨달음. ..... e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8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등에서 인공지능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음성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분명하게 발음하거나 여러 단어를 쉼 없이 발음하는 경우 시스템이 어떻게 이를 올바른 문장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입력된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한 다음,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어나 문장의 오류를 보정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된다. 이러한 기술에는 철자 오류 보정 방식과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이 있다.

[A]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은 교정 사전과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 기반으로 잘못된 문자열*을 올바른 문자열로 바꿔 주는 방식이다. 철자 오류 보정은 '전처리, 오류 문자열 판단, 교정 후보 집합 생성,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과정을 거친다. 먼저 '전처리'는 입력 문장에서 사용자의 발음이 불분명하게 입력되어 시스템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문자열을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 주는 과정이다. 가령, '실크'가 '싵'으로 인식될 경우, '싵'이라는 음절이 국어에 쓰이지 않으므로 '실크'로 바꿔 준다. 이렇게 전처리가 끝나면 다음 단계인 '오류 문자열 판단'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입력된 문장을 어절 단위의 문자열로 ㉡ 구분하여, 각 문자열이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교정 사전이란 오류 문자열과 이를 수정한 교정 문자열이 쌍을 이루어 구축되어 있는 사전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어휘인 '할려고'의 경우,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할려고', 이를 수정한 교정 문자열에 '하려고'가 들어가 있다.

처리된 문자열이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바로 결과 문장으로 도출되지만, 존재할 경우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오류 문자열과 교정 문자열 모두를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 생성한다. 예컨대 처리된 문자열이 '할려고'일 경우, '할려고'와 '하려고' 모두를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한다. 그런 다음 '최종 교정 문자열 탐색' 단계로 넘어간다. 여기서는 철자 오류가 거의 없는 교과서나 신문 기사와 같은 자료에서 어휘들의 사용 빈도를 추출한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정 후보 중 사용 빈도가 높은 문자열을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하여 결과 문장을 도출한다. 만일 통계 데이터에서 '할려고'의 사용 빈도가 1회, '하려고'의 사용 빈도가 100회라면 '하려고'를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하는 것이다.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은 잘못된 띄어쓰기를 통계 데이터와 비교하여 올바른 띄어쓰기로 바꿔 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력된 문장의 띄어쓰기를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진법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음절의 좌나 우, 혹은 음절의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 1, 공백이 없을 때 0으로 표기한다. 가령 '동생이 밥 을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밥'은 음절의 좌, 우에 모두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이진법으로 나타내 '1밥1'이 되는데, 이를 편의상 '밥(11)'로 나타낸다. 같은 방법으로 '밥 을'은 두 음절의 좌, 사이, 우에 모두 공백이 있으므로 '밥을(111)'이 되고, '밥 을 먹'은 '밥을먹(1110)'이 된다. 이때 문장의 처음과 끝은 공백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이진법으로 변환한 다음, 올바르게 띄어쓰기가 구현된 문장에서 ㉣ 추출한 통계 데이터와 비교한다. 그 결과 빈도수가 높은 띄어쓰기 결과에 맞춰 띄어쓰기 오류를 보정한다. 만약 통계 데이터에서 '밥을(111)'의 빈도수가 낮고 '밥을(101)'의 빈도수가 높을 경우, 이에 따라 '밥 을'은 '밥을'로 띄어쓰기가 보정된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올바른 단어나 문장에서 추출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정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정의 정확도를 ㉤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계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것이 요구되지만, 이 경우 데이터 처리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보정의 정확도와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모두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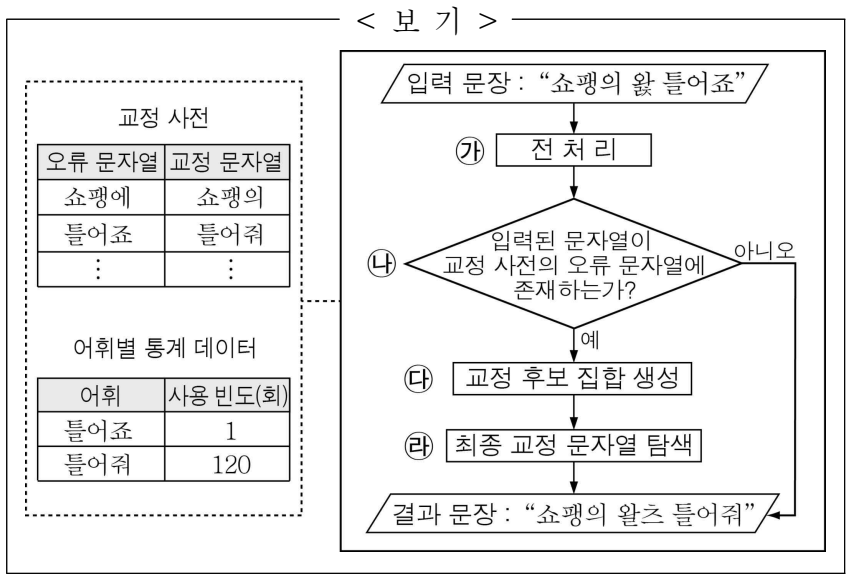
* 문자열 : 데이터로 다루는 일련의 문자.

3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잘못 입력된 문장이 보정되지 않으면 음성 언어 비서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② 음성 인식 오류를 보정할 때는 사용자의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③ 철자 오류 보정 방식은 각 단계마다 입력된 문장을 음절 단위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처리한다.
④ 띄어쓰기 오류 보정 방식에서 입력된 문장의 처음과 끝은 공백이 있는 것으로 처리된다.
⑤ 통계 데이터에 포함된 데이터의 양을 늘리면 보정의 정확도는 증가하지만 처리 속도는 감소한다.

39. [A]를 참고로 하여 <보기>의 ㉮ ~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① ㉮ : '왌'를 '왈츠'로 교정하여 처리가 가능한 문자열로 바꿔 준다.
② ㉯ : '쇼팽의'를 교정 사전에서 확인한 결과 오류 문자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 문장으로 바로 보낸다.
③ ㉯ : '틀어죠'를 교정 사전에서 확인한 결과 오류 문자열에 해당하므로 '교정 후보 집합 생성' 단계로 보낸다.
④ ㉰ : '틀어죠'가 교정 사전의 오류 문자열에 있으므로 '틀어줘'만을 교정 후보로 하는 교정 후보 집합을 생성한다.
⑤ ㉱ : 어휘별 통계 데이터를 적용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틀어줘'를 최종 교정 문자열로 선택한다.

4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ㄱ ~ ㅁ에서 <보기>의 띄어쓰기 오류 보정이 일어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입력 문장	→	결과 문장
ⓐ 나는 학생 이다		ⓑ 나는 학생이다

(통계 데이터 빈도수 비교 결과)

ㄱ. ⓐ의 '생(01)' > ⓑ의 '생(00)'
ㄴ. ⓑ의 '학생(100)' < ⓐ의 '학생(101)'
ㄷ. ⓐ의 '이다(101)' > ⓑ의 '이다(001)'
ㄹ. ⓑ의 '생이다(0001)' < ⓐ의 '생이다(0101)'
ㅁ. ⓑ의 '학생이(1000)' > ⓐ의 '학생이(1010)'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41. 문맥에 맞게 ㉠ ~ ㉤을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바탕으로
② ㉡: 나누어
③ ㉢: 만든다
④ ㉣: 고친
⑤ ㉤: 높이기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 줄거리] 선녀였던 월영은 호원의 딸로 태어나 최 상서 아들 희성과 정혼하고 월귀탄 귀걸이를 징표로 준다. 모해로 부모를 잃은 월영은 상을 치르려고 소주에 이르는데, 월영의 현숙함을 듣고 소주 자사 위현은 차인을 보내 혼인하려는 뜻을 전한다.

"낭자의 말씀이 그른지라. 이제 낭자의 부모 친척이 없고 천리원정에 최생 소식을 통할 길이 없거늘, 헛되이 신의를 지키고 평생을 그르게 하니 어찌 아깝지 아니하리오. 또한 위 자사는 청춘에 부귀영화 일국에 진동하니 이제 낭자 결혼하여 빛난 가문에 아름다운 부인이 되어 생남생녀하시며 부귀영화 누리다가 백년해로하시고 위로 부모의 제사를 받들고 아래로 평생을 온전케 할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오. 사생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최생을 따르고져 하시나이까. 낭자는 깊이 생각하소서. 불연즉 도리어 큰 화가 있을지라.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다."

하거늘 낭자 변색 대로 왈,

"비록 규중에 있어 배운 것은 없으나 인륜대절은 아나니, 어찌 불측한 말로 감히 욕되게 하느뇨? 그대는 자사의 형세를 자세히 알거니와 나도 사대부 여자로 도리가 있거늘, 비례를 행하라 희롱하니 어찌 방자치 않으리오."

즉시 노복을 불러 등을 내치니 차인이 무료하여 돌아와 낭자의 화용월태며 수작하던 말을 자세히 고한대, 자사 듣기를 다하고 차탄 왈,

"이 여자는 짐짓 군자호구(君子好逑)라. 천만금이라도 달라지 못하거니와, 내 만일 이 여자를 구치 못하면 맹세하고 이 세상에 살지 못할지라."

하고 한 꾀를 내어 일봉 서간을 만들고 봉채를 차려 시비를 주며 왈,

"호부에 가서 ㉠ <u>여차여차</u>하라." 하고 보내니라.

각설, 낭자가 차인을 보내고 울울한 마음과 혈혈한 일신을 진정치 못하여 차탄함을 마지아니하더니, 시비 들어와 고하되,

"경성 최 상서 댁 노복이 서간을 드리나이다."

하고 서간과 금함을 드리거늘, 낭자 시비를 명하여 함을 열고 보니 명주 십여 필과 황금 채단이 들었는지라. 낭자 미소하고 시비로 하여금 서간을 보라 하니, 그 서간에 왈.

"경성 최생은 두 번 절하고 호 낭자 좌하에 올리옵나니 슬프다. 세월이 여류하여 벌써 상공의 삼년상을 지낸 지 오랜지라. 전일 언약을 굳게 지키어 지금까지 실가를 정하지 아니함은 이유 없도다. 낭자를 저버리지 아니함이니, 이제 십여 노복과 조그마한 보배를 보내나니, 이것이 소소하나 행장을 차리어 전일 정한 언약을 이룸이 또한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낭자는 빨리 돌아와 고대하옵는 마음을 저버리지 마옵소서. 허다한 말씀을 다 못하나이다." 하였더라.

낭자 듣기를 다하매 위 자사가 보낸 줄 알고 냉소하기를 이윽히 하더니, 시비 등을 불러 왈,

"최생의 서간을 보시고 냉소하시니 어쩐 일이시오니까."

[A] "봉서를 보니 의심이 많도다. 최생이 나를 데려가려 할진대, 천리 원정에 노복만 보내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서간의 말씀이 심히 허소하니*, 의심이 두 가지요, 최생의 글씨는 사람마다 칭찬하는 바이나 글씨 이같이 무식하니, 의심이 세 가지요, 나의 월귀탄은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의심이 네 가지요. 최 상서는 본대 정직한 군자라, 어찌 원로(遠路)에 이렇듯 보배를 보내리오. 의심이 다섯 가지라. 이는 위 자사가 나를 반드시 속이고져 하는 일이라. 어찌 경솔히 발행하리오."

유모와 시비 등이 이 말을 듣고 탄복함을 마지아니하더라.

낭자 즉시 봉서를 담아 그 노복으로 금백 채단을 도로 금함에 넣어 보내니 그 노복 하직하고 가는지라.

각설, 이때 자사 묘한 계고를 내어 보내고 내념에 생각하되,

'내 비밀한 계교는 유식한 남자라도 속을진대, 또한 어린 여자가 어찌 의심할 바가 있으리오.'

하고 기다리더니, 문득 노복이 헛되이 옴을 듣고 대경하여 발을 구르며 문 왈,

"네 어찌 헛되었는가"

노복이 가로되,

"㉡ <u>여차여차</u>하옵기로 봉서와 금함을 도로 올리나이다."

(중략)

"우리 등은 위 자사의 명을 받아 낭자를 모시려 왔사오니 낭자는 바삐 가시면 좋거니와 불연즉 이 비수 아래 놀란 혼백이 될 것이니, 어찌 청춘이 아깝지 아니하리오.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니 낭자는 길이 생각하소서."

낭자가 정색 대 왈,

"내 비록 여자나 너희 등 비수는 두렵지 아니하나, 어찌 죽기를 저어하리오마는 지금까지 목숨을 보전하기는 이유 없도다. 부모의 유언도 있을뿐더러 후사를 근심함일러니, 이제 너희 등의 핍박을 보니 어찌 소소한 일을 생각하고 잔명을 구차히 살아 무엇에 쓰리오. 또한 내 벌써 죽어 너희 자사의

더러운 욕을 씻고져 하였더니 이제 너희 등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 먼저 자결하여 더러운 욕을 면하리라."

하고 언파에 비수를 빼어 우선 자객 삼 인을 베니, 관군 오십인 등이 수각이 황란하여 손을 놀리지 못하고 각각 몸을 빼쳐 도망하더라.

규중에 조그마한 처자로 어찌 자객 삼사인을 베리오마는 이는 반드시 범인이 아니요. 조화가 무궁한 연고로 이러함이라. 관군 등이 낭자를 해치지 못하고 도망함은 목숨을 아낌이라. 낭자 관군 등을 물리치고 인하여 자결하는 체하니, 관군 등이 몸을 감추어 그 낭자 하는 거동을 보고 자사에게 돌아오니라.

이때 낭자 계교로써 관군을 물리치고 노복을 불러 자객의 주검을 자사 부중에 버리고 오너라 하거늘, 노복 등이 그 경상을 보고 대경 왈,

"이 어찐 신체오며 낭자는 어찌하여 살아 계시이까."

낭자 소 왈, "지금 ㉡여차여차하였노라." 하거늘 노복 등이 낭자의 의견과 담대함을 하례하더라.

이때 관군 등이 돌아가 자사를 보고 전후 수말을 고한대, 자사 듣기를 다하매 오래 침음하다가 또 흉계를 내어 친히 와서 해치려 하더라. 낭자는 본대 지혜 용맹 있는 여자라. 자사의 흉계를 짐작하고 일변 남복(男服)을 짓고 상복을 지으며, 초상을 치르게 준비한 후에 거짓말을 내어 왈,

"호 낭자 병이 깊이 들어 만분 위중타 하니라."

이때 자사 듣고 허실을 탐지하더라.

낭자 가만히 유모와 시비 사인을 데리고 금안이라 하는 골로 가서 부모의 친구를 찾아 의지코져 할새, 노복을 불러 왈,

"오래지 않아 자사 올 것이니 ㉣여차여차하면 너희 등은 화를 면하리라"

하고 각각 이별 후 낭자 남복을 개착하고 월야를 타서 금안으로 달아나니라.

– 작자 미상, 「월영낭자전」 –

* 허소 : 허술하거나 허전함.

4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꿈과 현실이 교차되면서 낭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② 서술자가 사건과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③ 우의적 기법으로 대상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액자식 구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⑤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로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부각하고 있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인물 간의 내재된 갈등을 직접 언급하여 사건 전개의 방향을 뚜렷하게 한다.
② ㉡은 여러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다양한 입장을 예상하게 하여 인물 간의 관계를 추론하게 한다.
③ ㉣은 인물의 성격이 변화됨을 암시하여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이끌게 한다.
④ ㉡, ㉢은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주요 내용을 생략하여 반복적 진술을 피하게 한다.
⑤ ㉢, ㉣은 인물이 앞으로 취할 행동을 알려 주어 독자들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44.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A]에서 찾아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낭자는 시비에게서 서간의 내용을 듣고 (　　)을 들어 위 자사가 자신을 속이려고 보낸 것임을 바로 눈치챈다.

① 최생이 자신에게 그간의 안위를 묻지 않음
② 최생이 먼 길에 노복만 보낸 일이 의심스러움
③ 최생이 썼다는 서간의 내용이 허술하고 빈약함
④ 최생과 정혼의 징표로 삼은 물건을 전달하지 않음
⑤ 보배를 보낸 것이 최 상서의 인물됨에 반하는 행동임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월영낭자전」은 주인공의 결연 과정에서 혼사를 어렵게 만드는 혼사 장애 모티프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반동 인물이 지위, 재물 등을 이용해 주인공과 강제 결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폭력성이 드러나고 대립이 심화된다. 한편 반동 인물에게 용기 있게 맞서는 데서 주인공의 윤리적 가치관, 비범함과 지략이 부각되며 흥미가 더욱 고조되는 서사적 특징을 보인다. 고난을 주체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당대 여성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고, 근대적 여성상을 제시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① 부귀영화를 누리는 위 자사가 지위와 재물을 이용하여 강제 결혼을 하려는 모습에서 혼사 장애 모티프가 드러나 있군.
② 무기를 든 관군들이 위 자사의 명령에 따라 낭자를 납치하려는 데서 권력의 폭력성이 자행되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③ 사대부 여자의 도리를 들며 위 자사의 위력에 저항하는 모습에서 인륜을 중시하는 주인공의 가치관이 드러나 있군.
④ 부모의 유언을 따르고 후사를 잇기 위해 목숨을 보전하려는 데서 근대적 여성으로서 주인공의 면모가 드러나 있군.
⑤ 병이 위중하다고 꾸민 후 남복으로 갈아입고 금안으로 떠나며 위기를 벗어나는 데서 주인공의 지략이 드러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